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7일 화요일 음 5월 17일 (9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산지와 북서부지역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3°C, 낮 최고 기온은 26-27°C의 분포를 보이겠다. 안개가 짙게 깔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sea breeze.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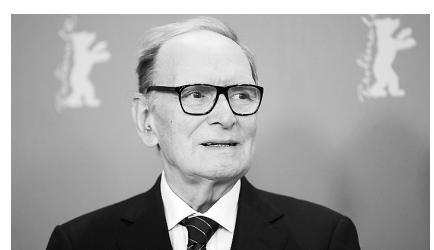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22/27°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

월드뉴스

영화음악 거장 모리코네 91세로 타계

500편 넘는 영화음악 작곡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

'시네마천국'과 '황야의 무법자', '미션' 등의 영화 음악을 만든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9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모리코네는 며칠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로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날 새벽 숨을 거뒀다고 ANSA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리코네 유족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모리코네의 별세 소식을 알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명석함과 존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례는 소박한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을 하고자 밝혔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난 모리코네는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

메리카', '언터처블'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다.

공포, 스릴러, 코미디 등 모든 장르의 영화를 넘나들며 세계인들의 귀에 익숙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썼다.

2016년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헤이트풀8'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지각'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 음악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아카데미는 그가 반세기 넘게 세계 영화음악에 끼친 영향력과 공헌을 인정해 2007년에는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폭풍이 지난 후

코로나19의 폭풍 속으로 깊이 침잠되는 나날이다.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혼돈과 절망의 상흔을 남기고 있다. 후자는 시대를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누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전례 없는 변화를 동반한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의 시대로 규정한다. 이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며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하던 소소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나.

KOTRA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유망 분야 키워드로 'H.O.M.E'를 제시했다. 'H'는 헬스케어, 'O'는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M'은 무인화(Manless), 그리고 'E'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를 뜻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비대면과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탈세계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국가 통제와 사회감시의 강화, 재택근무와 원격진료의 일반화, 그리고 소비와 생산 방식의 변화 등이 두드러질 것이다.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 항공업과 여행업 등의 위기, GDP 감소와 소비 부진, 실업률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의 증가 등 부정적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갈등과 코로나 확진자의 일탈 행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폭풍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

듯, 코로나19도 백신과 치료제의 시간 이후 점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의 세상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확정된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 노멀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코로나 이후의 인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어야 하는 것일까? 대다수 뉴 노멀 시대의 예측에는 노멀로의 복귀와 각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현재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탈세계화 등 교류가 제한된 사회는 인류 진보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이다. 인류는 시련 속에서 협력, 공조,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왔다.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패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다시 인간

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아니라 삶의 고통의 최소화를 위한 투쟁의 시기이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적응이 아니라 기존 일상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기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골목산업이 존재해야 하듯, '비대면 경제' 시대에도 '대면 경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도 여행을 하고, 동료들과 마주앉아 소통을 하며, 이웃과 사회의 일원으로 어울리며 살아갈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회복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새로운 진보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 전보다 나아진 세상이어야 한다. 폭풍을 이겨내는 힘은 연대와 배려이고, 그 힘이 모여 폭풍이 지나간 후의 세상을 만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열린마당

감귤 조수입, 새로운 희망 발견



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2019년산 감귤조수입이 8506억원으로 2018년산 9402억원, 2017년산 9458억원, 2016년산 9114억원과 비교해 볼 때 최근 4년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세 차례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해 출하 초기 노지감귤 품질이 안 좋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과일시장 거래 자체가 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산 감귤 조수입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월 전 출하된 노지은주는 품질이 떨어져 가격이 급락한 반면, 1월 후 출하된 만감류와 하우스은주는 코로나19 악재를 뚫고 국민 비타민 과일로 재탄생하며 조수입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위축된 소비시장에서 제주 만감류가 선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에 있었을까? 지난해 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만감류 숙의토론회에서 다양한 개선대책이 나왔고, 도는 완성된 만감류의 분산출하를 위해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와 출하장려금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과일시장에서는 제주산 만감류의 완숙 출하를 위한 생산지 유통의 큰 변화로 보고 맛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

또한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감협과 함께 전국적으로 '은-오프라인 연계 행복만감222페스티벌'을 통해 한달 동안 한라봉 등 4128t의 물량을 판매했다. 또 재해구호기금으로 8개 시도 180개 선별진료소에 8.4%의 한라봉을 전달해 국민비타민 과일이 라는 이미지 쇄신을 노렸다.

생산농가 스스로 결의를 모으고 이를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해 선제적인 홍보 마케팅 확대를 유통을 정상화한 좋은 사례다.

2019년산 감귤 조수입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만감류의 조수입은 재배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생산농가와 단체가 힘을 합쳐 위기극복을 위한 원동력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위한 성과관리(BSC)



한명숙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는 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캐프란 교수와 노턴박사에 의해 시작돼 성과평가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BSC는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민원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기업의 전략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BSC는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원 지향적인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들 성과지표는 민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과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민원 관점에 기반을 둔 성과자료를 토대로, 민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

야 하는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세워야 하고 관리자는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적 활동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 민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의사결정, 조직을 통한 지표들로 이뤄져 있으며 민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에 중요한 내부프로세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각 조직 간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업무 전개가 가시화 되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BSC는 어떤가? 지방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창출의 제고 등을 위해 연 1회 성과평가(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별·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 차등 지급(S, A, B, C등급)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해당 부서의 최고의 성과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 간 경쟁으로 나온 경영,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미니향 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변이지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일남일호

감귤묘목 2021년 식재용 예약 유라조생 1년생 카라향 1,3년생 유라실생 1,2,3년생 레드향(무독) 1년생, 2,3년생 천혜향(무독) 2,3년생 궁천 1,2,5년생 궁천 변이지 1,2년생 하례조생 1,2년생 한라봉 5,6년생 석파농산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NETWORK 설비) ONE-STOP SYSTEM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